

---

1991年度行政事務監査 內務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

---

被監査機關 民防衛局

---

日時 1991年12月3日(火)

場所 內務委員會

---

(10時 05分 監査開始)

○委員長 鞠應好;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16條 및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 調査에 관한條例에 의하여 서울特別市民防衛局 所管에 대한 1991年度 서울特別市議會的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同僚委員님 여러분! 그리고 行政監査 受監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民防衛局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第3代 서울特別市議會가 開院된 이래 처음 맞이하는 定期會議 기간이고, 또 처음 실시하는 行政事務監査에 임하여 일천만 서울市民의 代辯者로서 그 責務가 막중하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평소 議政活動에서 얻은 각종 情報와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市政의 올바른 指標를 제시하는 行政事務監査가 되도록 內實있고 深度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執行部 關係 公務員 여러분은 質疑에 대하여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監査를 통해서 相互 牽制와 協調의 수레바퀴를 이

끄는 模範의 틀을 우리 서울市民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本 監査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委員 여러분과 執行部 關係 公務員 여러분의 많은 協助를 당부드리면서 人事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受監機關의 宣誓가 있겠습니다. 民防衛局長께서 海外出張으로 不在 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局長을 대신해서 民防衛課長 鄭泰福 課長과 非常計劃課 金允燮 課長, 運營課 白亨奭 課長이 局長을 대리해서 監査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民防衛局長을 대신해서 鄭泰福 課長이 나오셔서 宣誓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關係 公務員은 宣誓하는 동안 전부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鄭泰福; (宣誓)

○委員長 鞠應好; 지금 鄭泰福 課長이 局長을 대리해서 두 분 과장과 함께 宣誓를 했습니다. 宣誓의 내용대로 성실한 受監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民防衛局 所管 業務報告가 있겠고 報告順序는 먼저 鄭泰福 課長이 局長을 대리해서 다른 課長을 소개한 마음에 現況을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鄭泰福; 民防衛局 民防衛課長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당연히 저희 民防衛局長이 나와서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이 監査를 받아야 마땅하겠습시다만 委員長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內務部 主管으로 民防衛局長이 각 市道 民防衛局長 전체가 지금 海外出張 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제가 대신 報告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報告드리기 전에 저희 關係 課長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運營課長 白亨奐, 非常計劃課長 金允燮)

그러면 民防衛局所管 業務報告를 民防衛課長인 제가 報告드리겠습니다.

.....

(報告)

민방위국 업무보고서

(보고중지)

(뒤에 실음)

.....

○李永鎬 委員;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가 벌써 어제 받았는데 이것을 쪽 내려가면 시간만 여기서 다 보낼 것 같은데.....

○民防衛課長 鄭泰福; 이 사항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李永鎬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보다는 특별히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우리 질의한 내용 가운데도 그렇게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현황도 있잖아요. 지금 벌써 보고 받는데 이것이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히 지적할 문제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방위국 감사할 시간이 오늘 오전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다 보면 결국 보고받는 것으로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鞠應好; 우선 계속해서 해 주세요. 그 다음 항부터는 특별히 문구로 썩여 있는 사항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이라든지 강조해서 답변드려야겠다고 생각

되는 점만 보고를 드리고, 일일이 나열보고는 말고 간략하게 생략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民防衛課長 鄭泰福; 네, 알겠습니다.

.....

(報告繼續)

민방위국 업무보고서

(보고중지)

(뒤에 실음)

.....

○李永鎬 委員;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해라 그랬는데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지난 제50회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이 지금 소상히 유인물화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미리 보고 되었기 때문에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서 보고로 우리가 우선 받아들이고, 이 내용에서 미비된 점이 있거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거나 해명을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주어지는 순서에 의해서 다시 질의를 하실 것으로 하고, 시간생략상 지난 제50회 때 지적된 사항의 답변요지는 문서로 우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民防衛課長 鄭泰福; 네, 알겠습니다.

.....

(報告繼續)

민방위국 업무보고서

(보고중지)

(뒤에 실음)

.....  
○委員長 鞠應好; 보고하시는 鄭 과장 말이죠. 소상한 점은  
지난번에도 들어서 아니까 좀 개략적이고 설명할 때 가서는  
아주 소상하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  
게 보면 지난번에도 듣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한 설  
명은 생략하고 시간을 절약합시다.

○民防衛課長 鄭泰福; 네, 알겠습니다.

.....  
(報告繼續)

민방위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집행부측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답변할 적에는 지금과 같이 장황한 얘기보다는 알맹  
이 있는 초점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는 능률  
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먼저 다 하  
시고, 그 다음에 약간의 휴식시간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듣도  
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보완한다든지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迎春 委員; 李迎春 委員입니다.

오늘 26년만에 서울시의회가 재개되어 첫 감사에 임하는 마

당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의 감회도 깊습니다. 또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만들고 여기에 나와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방위국장이 언제 출국했습니까?

○民防衛課長 鄭泰福; 11월 20일에 출국했습니다.

○李迎春 委員; 11월 20일입니까? 무슨 이유였습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民防衛課長 鄭泰福; 내무부 주관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민방위제도 및 재난 대비제도 시찰입니다.

○李迎春 委員; 특별한 세미나는 없었던 것이죠? 민방위국장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해외시찰이었죠?

○民防衛課長 鄭泰福; 네.

○李迎春 委員; 그리고 귀국은 언제 합니까?

○民防衛課長 鄭泰福; 귀국 예정이 12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李迎春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 진정 지방자치제의 뿌리를 내리고 천만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해결하고자 우리 시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때입니다. 더욱이 12월 2일에 정기의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민방위국장들의 해외교육을 빙자하여 해외시찰에 나갔다는 그 자체는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내무부 부처의 그 행태와 작태가 국민들로부터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서울시 민방위국장은 이러한 정기 의회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만부득이하다면 적어도 예의상 우리 내무위원회에와 가지고 또는 내무위원장에게 그러한 어쩔 수 없는 내용의

사실을 알려드리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서야 우리 민방위국장이 해외에 나간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의회의 첫 감사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는 이런 감사를 첫 감사일정에 잡았다는 그 자체도 저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인지 위원장께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감사기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위원장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李迎春 위원님 말씀이 아주 백번 지당합니다.

전국적으로 아주 법률에 규정되기를 12월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기회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금년도의 우리 시대조류에 큰 알을 두 개나 낳아 놓았는데 이것이 잘 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할, 지방자치의 산파역할을 한 내무부가 그 기간을 빼서 각 시·도 민방위국장을 전부 끌고 지방자치감사를 피해 나갔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민방위국 감사일정을 뒤로 넘겼을 텐데 지금 李迎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처음 제가 출근을 하니까 과장이 와서 그런 보고를 해서 저도 아차, 했습니다.

민방위국장이 돌아오는 날이 4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루 7일날 감사일정을 여유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민방위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선 시간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민방위국장이 참석하는 날 감사할 사항은

유보해 두시고, 과장들에게 간이하하게 질의하실 사항만 오늘 질의응답을 해서 자질구레한 감사는 끝내놓고, 무게 있는 막중한 감사는 12월 7일날 다시 민방위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迎春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우선 그렇게 李迎春 위원님의 동의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 여유를 잡아 놓았던 12월 7일날 감사에 민방위국이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감사를 다시 실시한다고 하는 명제를 우선 결정해 놓고 그 방법과 시간과 그 내용은 추후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李永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鞠應好; 네, 말씀하시죠.

○李永鎬 委員; 지금 李迎春 위원께서 아주 지당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국 시·도의회가 12월이면 정기회를 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감사가 있고 예산심의가 있는데 지금 과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어떤 국제적인 행사로 날짜를 조정할 수 없는 그런 계획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자의적으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이런 해외연수 출장계획을 이 시기에 했다는 것은 내무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자세,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극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무부가 주관했다고 그래도 서울시가 이게 조그마한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되는 이와 같은 자치단체인데 그 어떤 계획이 통보가 되었으면 그것을 시정하도록 고치도록 마땅히 건의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데 감사계획을 협의할 때 민방위국에서는 사전에 그와 같은 내용을 본 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지금 와서 알리느냐, 그 피감사 태도도 마땅히 질책을 당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7일날 계속해서 민방위국 감사를 한다고 하는 방침에는 전적으로 同意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는 교훈을 줘야 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업무현황 보고시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한 것은 감사받는 태도가 틀렸습니다. 시간이 당연히 이렇게 짧은 것을 알면서 쓸데없는 보고를 길게 하고 있어요. 몇 번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것 자주 읽어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감사받는 태도, 이런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7일날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委員長 鞠應好; 또 다른 위원 질의말씀 해 주세요.

네, 金容一 委員님 말씀하시죠.

○金容一 委員;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관계가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핵개발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어저께 실시된 소련의 아시는 바처럼 우크라이나 공화국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강대국의 핵무기 안전관리대책이 심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평화의 시대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전쟁이라고 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유사시 각종 대피시설은 인원 수용능력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유사시 서울시민을 대피를 시켜놓고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가느냐에 대하여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려 급수관의 파괴시 지하대피시설 내의 인원에 대한 급수계획이나 또 역시 급양계획 및 급양시설은 전혀 없

는데 그렇다면 유사시 대피만 시켜놓고 전부 굶어 죽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정부의 민방위대책은 형식에만 치우치고 그 근본 취지인 유사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핵전쟁과 더불어 발생할지도 모르는 화학전에 대비하여 화생방 방어장비 보유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후 유사시에 소성가스 또는 신경가스 등 살상용 그러한 가스가 서울시에 살포가 되었을 때에 市民들이 어떻게 가스에 대처해야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화생방 방어장비 보유현황 중 소요人員이 市公務員과 또한 職場民防衛隊員을 합한 人員이 27萬 名 정도만 소요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地域民防衛隊員은 어떻게 되며, 이들을 一般市民들로 統括하여 볼 때 一般市民은 자율적으로 확보하도록 권장한다는데 확보수준의 실태와 파악, 제도로 되어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유사시에 市民들이 어떻게 防毒面이라든가 부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안보적인 차원에서 防毒面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웬만한 市民들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弘報對策은 무엇인가,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또 質疑해 주실 委員님, 네 말씀하시죠.

잠깐 조금 제가..... 지금 質疑를 해 주시는데 아까 7日날 우리가 再監査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課長들의 答辯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委員님들이 지금

質疑하시는 것은 7日날 局長이 와서 答辯하도록 할 것이니까 빠짐없이 그날 다시 우리가 質疑는 하실 필요가 없고, 오늘 質疑를 다 해 놓고, 그리고 答辯은 그날 듣는 것으로 할 테이니까 委員님들 빠짐없이 質疑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李永鎬 委員를; 지금 民防衛 한 지가 몇 년 되었죠?

○民防衛課長 鄭泰福; 16年 되었습니다.

○李永鎬 委員; 16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業務報告 하는 내용을 보거나 자료에 대해서 對答하는 것을 봤을 때 창의성이 전혀 없어요.

民防衛業務를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민방위, 우리가 학교에 학생들을 보낼 때 國語도 배우고 數學도 배우고 하면 시험을 치르잖아요. 시험치는 것은 目標設定입니다. 目標에 대한 어떤 어느 단계까지 올라야겠다 하는 標準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점인데 100점에서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98점이 되느냐, 70점이 되느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標準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標準이 있어야 되는데 民防衛局에서 그런 標準을 한번 設定해 보았느냐, 敎育을 시키는데 여기 被敎育, 의무적으로 나와서 敎育받아야 되는 대상도 있고 또 一般市民들도 있습니다. 또 一般市民은 여러 팀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을 시키고 敎育을 시킬 때 대상자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을 익혀야 되고, 이것을 해서 테스트를 해 보아야 돼요. 효과 測定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業務報告나 資料提出 한 것을 보면 효과 測定을 했다는 흔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과연 서울시에서는 16年 동안 民防衛를 하면서 그런 효과測定을 한 번 해 보았느냐, 사실 이 業務報告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報告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待避施設은 얼마만큼 있어야 된다는 標準이 있어야 되고, 그 標準에 따라서 얼마만큼 지금 도달하고 있다, 또 그 非常給水 問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市民들이 알아야 할 것, 익혀야 할 것은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다,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서 民防衛 政策을 運營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目標가 뭐예요? 民防衛局에서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目標가 뭐예요?

되는 대로 한다, 되는 대로 해 보고 그 만큼 되었으면 그것으로 적당히 얼버무리고 됐다, 조금 더 잘 해 보자, 그래서 우물 몇 개 더 파자, 待避施設 조금 더 늘리자, 아까 待避施設 면적도 보니까 일인당 0.85坪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標準입니까? 뭐니까? 초과되었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안 그러면 미달될 수도 있고, 무슨 標準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非科學的으로 非合理的으로 民防衛 目標도 제대로 設定해 놓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中央政府에서 총 지휘하는 內務部에 一次的인 責任이 있지요. 그러나 서울에 천백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民防衛訓練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豫算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인력이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건설적인 그런 분야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인력이 여기에 이렇게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公務員들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 나가느냐, 이것이 그런 效果測定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民防衛訓練을 함으로써 全國은 물론 서울市 所管이 아니니까 全國的으로 해야 할 일인데 民防衛訓練에 들어가는 經濟的인 費用 計算 같은 것을 해 보았느냐, 그런 것을 해 봐야 정신이 바짝 드는 것입니다. 民防衛 때문에 우리가 經濟的으로 얼마만한 費用을 支出하고 있느냐, 서울에서.....

그리고 이 民防衛가 잘못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야지, 이것을 內務部에서 지시 내려오는 것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式으로 해 나가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것이 용납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地方自治時代예요. 그러면 서울市가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온 것이 있는지 나중에 局長이 오시면 答辯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答辯해 주기 바랍니다.

○委員長 鞠應好; 또 다른 委員. 네, 白中元 委員님 말씀하시죠.

○白中元 委員; 白中元 委員입니다.

政策的인 것은 다음에 局長이 오시면 質問하기로 하고, 實務的인 것 몇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報告資料에 의하면 民防衛隊員 自律防犯活動 展開라고 해서 쪽 計劃이 되어 있고 또 推進實績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內務部의 공통된 지시입니까, 아니면 서울市 民防衛局 計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 1월 1日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報告를 했습니다. 과연 生業에 바쁜 40歲 이하 地域 民防

衛隊員이 警察 또 防犯隊員 合同으로 防犯巡察이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지 분명히 答辯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다면 實施結果 報告書를 반드시 資料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政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의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충분한 檢討와 計劃 그리고 효과, 運營方案도 없이 展示用 그리고 上部에 報告用으로 세운 卓上空論이 아니라는 反證이 있으면 꼭 가식없이 資料를 제시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住民申告網 運營에 대한 지금 計劃이 樹立되었다고 아까 報告를 하셨는데 住民申告網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복합적인 住民生活環境 때문에 그야말로 不純分子가 어떻게 언제 침투해서 活動할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申告網 體制라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基本申告網이라고 해서 統·班長의 申告網, 그리고 移動申告網이라고 해서 청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美化員 아납니까? 美化員, 집배원 등 申告網을 조직해 놓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요식업소 각 미용업소 등 업소별로 申告網을 구축 놓았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報告內容 그대로 실질적으로 申告網 體制가 확립되어서 運營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분명한 資料를 근거로 해서 答辯해 주기 바랍니다.

더욱이 추진실적이 10萬 3,170件이 申告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거동 수상자 또는 야간퇴폐 변태업소, 不法駐·停車 등 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事例別로 분명히 근거를 10萬 3,170件에 대해서 분명히 提出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非常井戶입니다. 대단위 공동우물을 설치할 경우에 個所當 약 3,000萬원이 所要되는데 이것이 현재 193個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가 보아도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그러한 施設이 運營되고 있는지, 또 點檢을 해 보았는지 이것을 분명히 또한 자료를 위주로 해서 答辯해 주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이러한 것을 質問하는 것은 모든 業務가 卓上에서 그야말로 현지를 답사하고, 조사하고, 檢討하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計劃을 樹立해서 추진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卓上에서 이렇게 좋은 文句만 써가지고 報告用으로 또는 무슨 展示用으로 이렇게 行政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質問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答辯을 소상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金泰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雄 委員; 金泰雄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까?

○民防衛課長 鄭泰福; 경찰청 예산 관계는 저희 민방위국에서는 전혀.....

○金泰雄 委員; 아니, 그런데 어저께 받아 본 내년도 예산의 설명서에 보니까 민방위 소관에 설명이 들어 있어요. 그것은 모르고 계세요?

○民防衛課長 鄭泰福; 민방위국 예산 중에 그 세항에 있는 사항도 저희 민방위비 전체가 민방위국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민방위국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민방위국 3과와 그 다음에 민방공통제소, 구 사업소 한 곳, 그렇게 네 군데 예산만 저희가 편성해

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내용을 전혀 모르고.....

○金泰雄 委員; 전혀 몰라요?

○民防衛課長 鄭泰福; 네.

○金泰雄 委員; 그러시면 의안과 직원!

어제 예산내역서 그것을 가져와 봐요. 설명서 없어요?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시경 지원관계가 민방위국 소관에 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민방위국에서 시경 예산 지원 관계를 맡게 된 근거는 무엇이고 주무과는 어느 과인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91년도 민방위국 총 예산액 중에서 시경에 지원액은 얼마인가,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제 생각은 경찰청이 독립청으로 된 이상에 국비부담이 원칙으로 보아지는데 앞으로 92년도부터는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예산을 절감하고 또 타 가는 시경쪽에서도 떼뺏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점이 있다면 우리가 국고보조를 지금 받고 있지요? 일부를? 과장님!

○民防衛課長 鄭泰福; 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金泰雄 委員; 교육의 일부 뿐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市 살림을 보다 알뜰하게 우리는 살림을 꾸려 가려고 노력중인 것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렇다면 모자라는 국고보조금은 더 우리가 요청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없는 돈에 이미 독립청으로 떨어져 나간 시경에 액수는 얼마인지 모릅시다만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시점에서



는 재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답변하실 국장님의 소신 또 서울시 입장, 이런 것을 밝혀 주실 것을 질문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文一權 委員; 文一權 委員입니다.

서울시민들이 현재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우리 좁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뜻과는 달리 본위원 소견도 똑같습니다. 전부 이것은 괴로운 국이다, 시민들이 바쁜 생활에 민방위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한다면 민방위국은 실질적으로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국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본위원도 같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신무장이 무엇이냐라고 교육을 시킨다면 그 이야기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신무장은 민방위국에서 아니더라도 다른 교육채널에서도 얼마든지 교육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을 시킨다, 뭐한다 해가지고 白中元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서민생활에 괴로움과 침해를 주는 업무를 일선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민방위국은 조금 전에 과장의 현황보고에 의하면 아주 막대한, 마음놓고 과도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는 91년도 12월말이 내일모레 닥쳐 오는데 현재까지 미집행 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민방위국의 기획실은 앞으로는 시행하지 못할 과도한 예산을 책정하여서 서울시 예산을 민방위국에 확보하는데 연연 급급하지 말라 이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세한 서울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저 기획실에서는 무조건

재산확보 하는 데 연연 급급해 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오늘 이 시점에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白中元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20명을 교체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대문 홍제동에 사는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중구에 와서 통대장하다가 이제 우리 위원께서 그 부분을 질의를 하니까 교체를 하면 그 동안에 그러한 썩어빠진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는 누구며, 여기에 대한 책임 처벌 여부는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해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민방위 한 번 빠지는 데 얼마다라는 것이 아주 공공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 20명 교체, 이렇게 답변하고 말 성질이 아니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집행을 했던 사람들, 공무원들 누구인가 분명히 밝혀 가지고 이 자리에서 모든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貢長 鞠應好; 丁寅燮 委員님 말씀하시죠

○丁寅燮 委員; 丁寅燮 위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확정 발표한 민방위제도 개선내용을 보면 민방위날 훈련을 연 9회에서 연 4회로 축소 조정하고 훈련내용도 민방공훈련에서 재난대비훈련으로 전환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이에 따라 평상시 유희시설이 되고 있는 민방위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에 지하대피시설을 평상시 지하주차장이나 교육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비상급수시설을 주민의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방안 등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의 민방위시설 현황과 평소 활용실태 및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고, 둘째로 민방위교육에 부조리가 개입될 경우 국민적 위화감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고, 셋째로 민방위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네. 趙熙濬 委員님.

○趙熙濬 委員; 趙熙濬 위원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전시 대비훈련과 재난 대비훈련으로서 병행하고 있는데 작금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전시 대비훈련보다는 재난대비 훈련, 즉 산불이라든지 풍수해 관계, 소방 등등 여러 가지 재난을 대비하는 훈련으로 아마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거기에 대한 장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답변하신 것을 보면 목표량보다는 22개 구청에 거의가 50%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목표는 정해 가지고 그렇게 장비가 확보가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산불이 났다면 산불을 끄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꼭 필요하겠고, 또 풍수해가 났다면 풍수해를 막는 데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되겠고, 소방관계는 역시 불을 끄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만 정했지 거기에 대한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민방위대원을 자율방범활동으로써 활용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40세 이하 지역민방위대원으로서 각 파출소에 1일 5명 내지 7명 규모로서 매일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각 파출소에 매일 5명 내지 7명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참여가 되도록 하지 않고 여태까지 형식적으로 지금 전시효과적으로 했다는 것이 이것을 볼 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네, 또 李丁煥 委員님.

○李丁煥 委員; 李丁煥 위원입니다.

요즘 신문보도나 매스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북한은 지금 영변 주위에 핵시설 준비가 한참 진행중이고 곧 핵폭탄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가시적으로 우리 한반도 전체가 핵위협에 휩싸인다고 전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까지의 민방위제도도 조금은 좀더 과학적이고 또 핵전쟁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16년 이상에 걸쳐서 시행되어 온 우리 민방위훈련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방법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핵전쟁에 대한 대비태세를 우리가 갖춰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료보고에 의하면 대피시설도 약 338%를 확보하고 있고 재난대비 급수시설도 228%라는 초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와 같은 위기상황이 왔을 때 우리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내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고 그 대피시설에 갔을 때 또 어떻게 급수를 충당을 하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

라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또 특히 핵전쟁을 통한 식수오염이라든지 공기오염에 대한 그런 대비책을 과학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방위본부에서는 이와 같은 핵전쟁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본위원이 서울시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대공협조구역 현황을 물은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총 면적의 14.8%에 해당하는 89.65km<sup>2</sup>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0.03km<sup>2</sup>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조차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책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증개축은 물론이고 여하한 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기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정말 89.65km<sup>2</sup>가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대공협조구역은 서울시 전 구역이 대공협조구역이라고 이렇게 밝혀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대공협조구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서울시 어느 건물이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이와 같은 군의 협조를 받아서 그 건물높이를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일반시민으로서 이것이 과연 정말 군 작전상 군 계획상 적정하게 책정된 높이인지 우리가 알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서 일반시민들이 정말 사유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민방위 당국은 시민을 대변해서 또 군과 합의를 해서 최소한의 군사보호구역

내지는 대공협조구역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민방위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네, 尹鎮商 委員님.

○尹鎮商 委員; 尹鎮商 委員입니다.

위원들의 요구자료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불참인원 69萬 4,602명, 교육 대상자 중 1.05%의 불참인원입니다. 아주 참석률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고, 듣고, 느끼는 점에서는 교육시 어느 지정한 사람의 통지를 가지고 확인도장 찍고 또 어린아기를 업고 나와서 그 날 참석을 하는 것도 교육참석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주 서민층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이십리, 삼십리 밖에서도 그 교육을 꼭 참석을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통장들의 인간관계라든지 또 청탁관계로써 그 날 교육을 참석하지는 않아도 다 참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다면 무단불참 52명이 있습니다.

69만 4,602명 중에 무단불참 52명이라는 참 어떤 분들인지 이 분들은 아주 생활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분들의 무단불참 명단과 또 면제사유 해당자 35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떠한 분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민방위교육법 제18조제6항의 통·이 민방위 대장은 통장, 이장이 된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거의 아파트가 80%인데 여성 통장들이 많습니다. 이 여성 통장들이 민방위 대장이 되어서 과연 비상시 재난발생시에 실질적인 지휘통솔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한 통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으

로 지역의 훌륭한 분을 민방위대장으로 임명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안이 없는지, 또한 강구를 해 보았는지, 또한 아파트단지의 그러한 애로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창의성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참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불참인원, 무단전출, 행방불명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구를 택해도 이 정도는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밀한 자료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무단불참, 무단전출, 행방불명에 대한 자료를 소상하게 보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鞠應好;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朴禧柱 委員님 말씀하시죠.

○朴禧柱 委員; 朴禧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수질검사를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해야 할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민방위훈련시마다 수질검사를 시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질검사시 복잡하고 오래 걸리지도 않으므로 훈련시마다 수질검사를 시행해 보고 3/4분기 수질검사시 결과로 볼 때는 미검사 한 곳이 전체 대상의 217개 중 약 10%가 넘는데 30개소가 되며 그 중 수원고갈로 미검한 곳이 10개소가 됩니다.

3/4분기에 가을철이고 또 수량도 많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시기에 수원이 고갈되어 있다면 폐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의 고장으로 12개소를 미검했다고 하는데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말입니다. 만약에 고쳤다면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고친 후에 수질검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민방위는 우리 지역의 재난관계에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동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서울시내 지하철공사 관계로 해가지고 많은 지하철 붕괴가 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재난인데 지난번에 마장동의 지하철 공사장에서의 붕괴사건이나 또 며칠 전에 당산1동의 지하철 붕괴사건 후에 민생과 직결된 비상사고 발생시 동원될 수 있는 지원 자체현황을 소상히 말해 주시고, 또 그와 관련 사고 지역에 급수할 수 있는 비상급수 체제 또 대피시설의 관리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사고날 때 우리 서울시 민방위국장이나 관계관들께서는 현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던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대피소가 야산에 약 100개가 방치되어 있는데 일부는 노인정이나 환경미화원이 탈의실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그것을 관리소홀 해 가지고 청소년 범죄 유발 가능성도 있고 한데 그것을 대피시설 관리를 철저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吳基昌 委員님.

○吳基昌 委員; 吳基昌입니다.

92년도 민방위훈련 및 교육 축소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92년도 민방위훈련이 연 9회에서 4회로, 민방위대원 비상소



집은 3회에서 2회로, 공습경보는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민방위훈련 목적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91년도 운영체계와 대비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시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보완대책과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시면 서울시의 강북지역 급수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전시에 서울전체가 해당되는 것이지 어째서 강북, 강남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세부내용은 보안상 제출이 곤란하다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長 鞠應好; 또 다른 위원님. 네 李迎春 위원님 말씀하시죠.

○李迎春 委員; 李迎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다라면 권력의 독재와 또 세계인류의 인구 조밀화, 1천만이 넘는 서울시 인구의 집중, 오늘 같이 이렇게 교통혼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같이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주민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차곡차곡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국내외의 안보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한의 호전성을 또한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 시민, 온 국민이 현재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그 효용성을 검토를 하고 성토를 하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민방위교육이 필요한지, 그래서 정부도 내

년부터 민방위교육을 단축시킬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민방위교육 폐지론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민방위국장은 이런 의회에 나와서 설득력 있는 자기의 소신과 민방위국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인데 마침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소신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의 기습으로부터, 전투기의 기습으로부터 대피하기 위하여 이 자료보고에 보면 서울시에 약 38만 개소의 대피소가 있습니다. 더욱이 아파트와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근처에 대피시설이 서울시만 해도 약 13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방위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또한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감각이 무디어서 그런지 모르나 이 대피시설의 이용율이 별로 없으며 이 대피시설이 청소년들의 범죄소굴이 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환경미화원들의 휴식소 또한 젊은 청소년들의 이상스러운 놀이터가 되고 있는 이 마당입니다.

이러한 데 예산을 더 이상 지출하지 말고 이 대피시설을 축소하고 폐쇄를 시켜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재삼 검토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泰雄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간단한 것입니까? 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金泰雄 委員; 金泰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민방위과장에게 민방위비 내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분명히 시경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그것을 아냐 했더니 통 모른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이 란이 민방위비 란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36페이지의 시경지원은 수도치안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비로 충당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최소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항목은 이 안에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소관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수감상태나 준비상태가 과연 제대로 되어먹은 것인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다음 차기 답변시에 성실한, 충실한 답변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鞠應好;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종료되었으므로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몇 번씩 지적하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민방위 상태를 한 서너 가지로 가상을 해야 됩니다. 이 서너 가지로 가상을 해서 대비를 시키는 데에는 민방위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이 일천만 시민이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소속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방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국장이나 그 과장들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전보되어 와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시하는 것이나 그저 하고 앉아 있다가 또 어디로 가면 그만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그 자리를 더럽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일천만서울시민은 누구를 믿고 사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의 뜻에 맞든 안 맞든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니까 민방위국장의 자리에 와 있으면 그것은 서울특별시를 보좌해서 일천만 시민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만 시민을 이 지방정부의 일천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방위 상태에서 어

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이번에 요행히도 전쟁과는 거리가 먼 나라를 아마 민방위국장께서 시찰을 하시는 모양인데 아마 갔다 오시면 상당히 지혜나 또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전쟁이 있는 나라든 없는 나라든 어느 나라든지 존재할 수 있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재난이 있을 때 이 때 우리 민방위훈련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세중립국도 생각지 않았던 외환을 당했을 때도 가상을 하겠지만 언제나 있는 것이 민방위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평상시에 전쟁이라는 것을 가상하지 않았을 때의 재난에 대한 민방위훈련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고 언제나 써먹는 것입니다.

그 체계를 하나 딱 세워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태도가 폐쇄적인 태도가 오판을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무기를 지금 굉장히 만들고 있는 것은 핵폭탄까지 만들겠다니까 저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못 믿는 나라예요. 지상에서 그래도 쿠바는 조금 다른 나라에서 짐작이라도 하는데 전혀 다른 나라에서 생각을 짐작도 못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재래식 무기 중에도 아주 발달된 몇 백 킬로를 나는 로케트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해외에 유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기를 만들어서 해외에 팔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화통일을 위해서 언젠가 한번 저것을 써먹고 말 것 같아요. 우리 서민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민방위훈련은 기습을 당했을 때 뭐 북한이 예고하고, 1차 예고하고 을지연습 할 때처럼 전운이 감돌고 어찌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 안 일어나요. 저네들은 웃음을 팔면서 회담을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6·25와 마찬가지로 기습을 해 올 것입니다. 기습해 올 적에는 비행기가 없이 자기네들은 앉아서 포로 쏘아서 서울시 태평로에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때 우리 민방위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까, 대피소, 그것이 하나의 정신교육상 필요한 대피소 훈련은 될는지 모르지만 그 대피소에 대피해 가지고 북괴에서 내려오는 저 포탄에 또는 폭탄에 대피가 될 것으로 짐작이 되십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대피소답게 북한은 200m 밑에 지하철도를 만들어서 대피소를 만든다는데 우리가 고층건물 아래층 지하실을 대피소라고 해서 싸이렌이 울리면 거기 우하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포탄 떨어졌을 때 안 죽을까요? 이렇게 해서 국민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빈정을 받습니다. 또 이 예비군 교육이니 민방위대 교육이니 가 가지고 한마디를 듣더라도 아! 저것은 저런 재난이 있을 때, 저런 기습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앉아서 농담이나 하다 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국민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습을 당했을 때, 북한의 오판으로 인해서 기습을 당했을 때 우리 일천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느냐, 민방위국장의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 내무부 지시 몇 호고 그러한 너절한 소리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국장이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기습을 받았

을 때 일천만에게 이렇게 해야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덜 죽이고 그 기습으로부터 피해 나가겠다는 것 하나,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핵을 자꾸 만들고 있으니 핵사찰을 해 봐야 저 친구들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핵폭탄이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도망가는 개도 도망갈 구멍을 놓고 쫓아야 되물지를 않는데 저 북한이 갈 길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파탄이요, 굶어죽게 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전부 배타시 당하니까 예라, 죽으면 마신다고 한 번 만들어 놓은 무기나 써 보자 해서 핵폭탄을 던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李丁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핵에 대한 대비, 그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규정이나 하고 있는 내용을 프린트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대국적인 견지에서 서울특별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민방위국장이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평상시에 재난이 있을 때는 서울시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복귀의 기습을 받았을 적에는 어떻게 보호하고, 또 저 어리석은 자들이 사용하는 핵폭탄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그 소신을 말할 수 있도록 밑에 과장들, 잘 이 속기록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다음 7일날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仁洙 委員;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네, 韓仁洙 위원님 말씀하시죠.

○韓仁洙 委員;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깊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7일날 국장님이 오시면 그 때 저는 질의를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우선 행정감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유된 각 기자재 장비라든가 방독면 등의 어떤 청결상태

나 불량상태를 점검을 해 놓으셨는지, 물론 행정감사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가 보지 않아서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한 것 정도는 점검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한 사항 내용에서 혼란 정보 중 15분 정도의 대피로 인한 생활불편이 지적되어 왔다고 하는데 그 지적된 사항이 무엇이 어떻게 지적되었는지, 또한 어떤 것이 생활불편에 지적되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기재해서 다음에는 보고를 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禧柱 委員; 위원장님,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네, 말씀하세요.

○朴禧柱 委員; 제가 아까 질문한 중에서 사실 대피시설 관리 및 활용방안인데 이것은 어저께 동아일보 12월 2일자 수도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대피소를 지금 현재 100여 개 곳에 있는데 이렇게 쓸모없이 해 놓았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쓸모없게 관리를 불충분하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委員長 鞠應好; 네, 말씀하시죠.

○李永鎬 委員; 李永鎬 委員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 제대로 뜻이 전달되었는가 해서 조금만 부연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기준이라든가 또 시민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한 적이 있는지, 또 그런 기준을 이용해서 효과측정을 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효과측정을 앞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런 방향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鞠應好;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우리 李迎春 위원님이 민방위국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위원장에게 질의를 해서 위원장이 우리가 7일날 감사를 하루 더 할 수 있으니까 7일날 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렸고, 또 李永鎬 위원님께서 찬성 발언까지 해 주셔서 동의를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신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예정했던 민방위국에 대한 감사는 일단 이것으로 1단계를 마치고 오는 7일날 오전 10시에 다시 재감사 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의사일정을 12월 7일 오전 10시에 민방위국에 대한 재감사를 할것을 의결합니다.

(議事棒 3打)

장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신랄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민방위 관계관들께서는 소상히 답변자료를 작성을 해서 또 국장께서 돌아오면 이 사항을 명백히 보고를 드려서 다음 재감사 하는 날 명쾌한 답변이 나와서 오늘 있었던 분위기가 싹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중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50分 散會)

---

○出席監查委員

鞠應好 朴禧柱 李丁煥 金泰雄

李迎春 丁寅隻 李永鎬 尹鎮商

趙熙濬 韓仁洙 文一權 白中元

吳基昌 金容一

○出席專門委員

俞炳敦

○被監查機關參席者

民防衛課長 鄭泰福